

시 무 식 사

2023. 1. 2.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사이 확대된 인적·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그동안 적체된 사건을 심리·처리하는 등 헌법재판이라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들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국민과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지난 11월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다섯 분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조치,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 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합동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연구관회의,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헌법재판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세계헌법 재판회의에는 5개 대륙의 94개 헌법재판기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재판소가 이 세계회의에서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를 주제로 한 국제적 논의에 기초연설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된 유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소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5년이 되는 해입
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일을 거울삼아 오늘
일을 본다면 풀지 못할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인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이며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모두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재판소가 꾸준히 노력해 이루어 온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확충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심판사무규정 개정 등도 모두 재판업무를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에 더욱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근래 헌법재판소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함으로써 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현실의 변화와 시대정신의 발전 상황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의 추상적이고 짧은 문장 속에 함축된 기본개념을 현재의 과학기술, 경제,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헌법재판의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결정 이유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높은 수준의 정합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업무의 배당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사건처리가 이유없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관련 업무도 충실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하고도 충실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국민 지능형 서비스 기반 구축에 이어,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지능형 재판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 및 업무상 필요성을 검토하여 업무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 발간도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처음 선보인 연례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헌법 재판소의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외국 헌법재판기관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소통과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연례 보고서 수록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은 지역적 차원의 제도화된 연구 분야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확산, 법치주의 확립,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문제 될 헌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여 연구와 조사에 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미래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헌법의 뜻과 정신을 국민의 생활 속에 온전히 구현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들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새로운 사회현상과 시대적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 1. 2.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